

# 호방한 해적들의 무용담... 차별화된 버전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은 제141회 정기공연으로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자 낭만적 모험의 대서사시인 '해적'을 무대에 올린다.

'해적'은 프랑스 시인 바이런의 서사시 '해적'을 원작으로 한 대서사 발레로, 납치된 여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적 콘라드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모험, 사랑의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그려낸다. 웅장한 스케일과 낭만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발레로, 팬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작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적'은 해적 대장 콘라드와 그리스의 아름다운 소녀 메도라, 노예상인 링케렘, 메도라 친구 벨나라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구조로, 원작 3막을 2막으로 재편해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화려한 군무와 고난도 테크닉, 감각적인 음악과 무대미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객을 단숨에 환상적인 세계로 끌어들이는다.

이번 광주시립발레단이 공연할 '해적'의 버전은 현대적 해석의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연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전개로 현대인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안무와 연출이 압권이다.

안무는 러시아의 세계적 안무가 엘다르 알리에브(Eldar Aliev)가 맡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마린스키 발레단의 예술감독 엘다르 알리에브(Eldar Aliev)는 "'해적'은 테크닉과 드라마, 예술성까지 모두 갖춘 대작이다. 클래식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강렬

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5년의 하이라이트가 될 이번 무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휘는 박승유(현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협연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해 생생한 라이브 음악으로 무대를 풍성하게 채워 감동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해적'은 화려

## 광주시립발레단 제141회 정기공연 '해적' 26~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서

한 군무와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구조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광주시립발레단만의 차별화된 해석과 고난도의 테크닉, 정통 클래식발레의 섬세함이 어우러졌다. 특히 콘라드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생기의 정원 장면은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로, 환상적인 상상력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적'은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이번 '해적'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27일 오후 3~7시 등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CULTURE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 창간 20주년 맞은 '문학들'

### 기후·난민 등 화두 담은 '혁신호' 펴내

광주를 연고로 발행한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발행인 송광룡)이 2005년 가을호로 창간된 뒤 20주년을 기념하는 통권 81호(가을호)를 펴냈다.

〈본보 6월 3일자 11면〉

81호 가을호는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는 혁신호로 지난 20년의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담았다.

혁신호를 기획하게 된 것은 비단 20주년을 맞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인문학과 자연과학, 문학 등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기후변화 문제와 신자유주의의 전일적 세계화, 비인간 행위자들의 등장, 이민과 난민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다.

이와 결맞게 시대의 방향성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진단하기 위해 '불법 계엄 이후 문학은 어떻게 변바뀔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의 '질문들' 및 이미지로 보는 주변성과 지역성을 조명하는 '광주+문학'이라는 코너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의 시와 소설, 동화, 에세이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담았다. [emjw@naver.com](mailto:emjw@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보아·동방신기, 첫 듀엣곡 선배

### 드라마 '모든 사랑이...' OST

K팝을 대표하는 한류스타 보아와 동방신기가 처음으로 듀엣곡을 선보인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와 동방신기는 일본 ABC TV 드라마 '모든 사랑이 끝난다 해도'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아너타오 가조에테'(あなたをかぞえて)를 함께 부른다.

2000년 데뷔한 보아와 2003년 데뷔한 동방신기가 협업곡을 발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아와 동방신기는 발라드 듀엣곡 '아너타오 가조에테'로 이별과 애틁함에서 오는 애절한 감정을 노래한다.

'모든 사랑이 끝난다 해도'는 다음 달 12일 첫 방영되며, OST 음원 발매 일자는 추후 공개된다.

연합뉴스

청년들이 꾸미는 '거리문화' 문화포차 어때요

.....

'주말은 청춘-스트릿댄스' 내일 청춘빛포차광장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말은 청춘-스트릿댄스' 행사를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 청춘빛포차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체가 돼 거리문화를 만들어가는 '2025 청춘문화누리터' 사업의 하나로 거리문화의 대표 장르인 스트릿댄스 1대 1 배틀로 꾸며진다. 거리와 광장에서 시작된 스트릿댄스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무대를 특징으로 하며, 청년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시민과 공유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다.

이번 배틀은 힙합과 하우스 장르의 프리스타일 형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전국 각지의 댄서들이 참여해 경쟁과 교류 속에서 성장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많은 시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주 지역 댄스팀 'SIKGU'의 초청 공연과 심사위원 쇼케이스 등 다채로운 무대도 준비돼 있다. 이번 대회 심사에는 JAE-SANG(박재상), SANG AH(박상아), NEOH(정권수), 5000(신

승훈), KIRIN(박세진), ODO(김도영) 등 국내 정상급 댄서 6명이 참여한다. 특히 심사위원 5000(신승훈)은 '빛고을댄서스' 대표로, 국내 최대 규모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인 '광주 배틀라인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부대행사로는 댄스워크숍과 댄스 영상 촬영이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대 위 댄서가 돼 보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청춘빛포차광장은 음악과 열정이 가득한 도심 속 거대한 무대로 변신한다.

지난 6일 열린 '주말은 청춘-코스튬플레이'는 우천으로 일정이 지연됐음에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많은 매니아층과 코스튬플레이어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스튬플레이어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인디문화로, 그동안 동호인끼리 소소하게 즐기던 모임에서 벗어나 '2025 청춘문화누리터'사업을 통해 무대와 출연료를 지원받아 공식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새로운 무대 경험을,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